

## 질문으로 하는 성경공부: 에베소서

### 1. 에베소서 1:1-14

- 1) 도입질문: 에베소서 전체(1-6장)를 한자리에 앉아서 (전화나 다른 방해없이 30-40분 소요됨) 통독해 보십시오. 이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 2) 관찰질문: 에베소서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자리한 교회로, 그 곳에는 이방 종교, 황제 숭배, 쾌락 추구 (많은 운동 경기 및 대중 공연 25,000을 수용할 수 있었던 극장 경기장), 그리고 지식 추구 (세계 3대 도서관)등이 왕성했던 부유한 항구도시였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거의 2년 넘게 사역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며 (주 후 62년경) 아니면 그리스 어느 지역에 거하며 이 서신을 썼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 편지를 쓰게 했을 까요? 이 편지를 통해 에베소 교우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 그리고 요지는 무엇이었을 까요?
- 3) 해석질문: 1:3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온갖 신령한 복”에 대해 증거합니다. 4절이후에 열거된 축복 중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 지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4) 적용질문:
  - a. 먼저오심: 1:1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 성별 된 사람들, 주님을 위하면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케 되었나요? 이것이 나의 노력 애씀의 결과 인가요 주님의 은혜의 선물인가요?
  - b. 만나주심: 1:2-11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 주신 놀라운 축복에 대하여 증거해 주십니다. 이 중 어떤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을 놀랍게 하는 축복인지 생각하고 나눠 보십시오.
  - c. 다듬으심: 1:12-13절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신

목적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14) 하심이 라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은 일상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미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 d. 들어쓰심: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깨닫고 믿고 또 그 인도하심 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13-14절은 “성령님의 날인…성령의 담보”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어떻게 성령님의 의존하여 신앙생활을 하시는지요?

## 2. 에베소서 1:15-23

- 1) 도입질문: 1:15-16절을 바울의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수천 마일 멀리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어쩌면 그들이 모르고 있었을 텐데, 지속적으로 기도해 왔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에 여러분을 위해 섬없이 기도해주신 분 어머니, 혹은 주일학교 교사, 등이 있으신가요?
- 2) 관찰질문: 1:17 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그리고 18절은 “마음의 눈이 밝아 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할까요?
- 3) 해석질문: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며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예수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심,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심에 관한 깨달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을 통한 교회위에 임재하심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 중 갈등이나 고민을 겪을 때 여러분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 어떨까요?
- 4) 적용질문:
  - a. 먼저오심: 우리의 모든 영적인 축복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으심 부활 승천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이 십자가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 b. 만나주심: 18-19절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의 일상에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위에 오늘도 함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 c. 다듬으심: 21-22 절은 세상의 모든 권세가 “주님의 발 아래 굴복 되었다” 하였는데, 이 약속이 오늘 도 역사 하심을 믿으십니까? 특히 가정에 자녀나 부부 관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며 믿으시겠습니까?
- d. 들어쓰심: 23 절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관은 어떤 것과 연관이 있나요? 여러분이 교회관은 그리스도와 그 분의 충만하심과 연관되었나요?

### 3. 에베소서 2:1:11

1) 도입질문: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안에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에게는 어떤 삶에 변화가 일어났나요? 본인 느끼시나요? 주변에 여러분을 잘 아는 분들은 무어라고 할까요?

2) 관찰질문: 2:2-3절에서 바울은 “그 때는,” …“전에는” 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알기 “전” 과 그 이후”를 *대조하며* 또한 “불순종의 자식, 진노의 자식”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놀라운 변화는 어떻게 가능케 되었습니까?  
(2:8-9)

3) 해석질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놀라운 은총의 변화를 설명해주며, 여러분이 “죽었다 살려졌으며” “따돌림 받던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의 자녀됨을 사실을 “명심”하라고 당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그리고 변화를 명심하며 살기 위해 기억하며 행하여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4), 적용질문:

- a. 먼저오심: 2: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려주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깨달았거나, 내 힘으로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 이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라는 찬송을 부르거나 낭송해보고, 날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억하고 나눠 보십시오.
  
- b. 만나주심: 2:8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칭의, 새 사람 만드심-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임** =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행위와 업적, 그리고 선물 믿음은 어떻게 다른가요?
  
- c. 다듬으심: 이 본문에는, 바울이 드러내 놓고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에베소 성도들이 잘 못 된 교리에 빠질 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선한일을 하게끔 창조해주신 하나님의 작품” (2:10) 임을 “명심하며” 살라고 당부합니다. 내가 주님안에 주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며 살기 위하여 명심하며 가슴에 새길 하나님께서 주신의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 d. 들어쓰심: 하나님의 은총안에서 지어진 새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고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인 일은”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교회, 지역사회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4. 에베소서 2:11-22

1) 도입질문: 친구, 가족, 이웃, 그리고 직장 동료 중, 마음에 상처가 되고 서운했던 관계에 있던 사람과 용서하고 화해해본 경험이 있나요? 화해 전 과 후에 경험에 대해 나눠보십시오.

2) 관찰질문: 2:13절은 “그리스도의 피로,” 2:14 “자기 몸으로” 2:16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등의 표현을 통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은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3.) 해석질문: 유대인들의 눈에 우리가 믿기 전 우리는 모두 이방인이었고, 이방인들은 “부정 (unclean) 하여 상종을 피할 대상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요한 4장),” “개 처럼” 낮은 (딸을 치료해 달라고 간구한 시로 페니키아 여인, 막 7:24-30) 인종,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언약 밖에 소망 없는 사람들로 간주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적대와 질시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2:14).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을 화해 시키고 막힌 담을 허시기위해 행하신 것은, 그 분이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4), 적용질문:

- e. 먼저오심: 언제 이방인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후손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축복의 후손 되었음을 깨달았습니까?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쁨과 은혜를 일깨워 주나요?
- f. 만나주심: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위에 세워진 (살아있는) 건물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서로와 연결된 성전, 성령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의 일상에 직면하는 갈등, 어려움, 스트레스 등을 해쳐나가는데 어떤 힘이 됩니까?
- g. 다듬으심: 본문은, 2:17,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성전이며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특권을 잘 사용하시나요
- h. 들어쓰심: 내가 평신도 이든, 직분자 이든, 목회자 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와 일치의 도구로 (2:17)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여러분을 통하여 용서하고 화해의 길을 택한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5. 에베소서 3:1-13

1) 도입질문: 바울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경륜,” “비밀,” “신비”등에 대해 이야기합니

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 드는 특별한 생각 혹은 떠오른 이미지가 있나요?

2) 관찰질문: 우리는 “비밀” 혹은 “경륜”등을 생각하면 뭔가 그동안 철저히 지켜져 왔고 감추어져 왔던 어떤 특별한 것, 그리고 노벨 상을 받은 과학자같이 몇몇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이 풀거나 해답을 얻는 심오하고 복잡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울은 모든 사람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하고 평범한 “비밀”에 대해 증거합니다: “3:6 그 비밀의 내용인 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증거한 “비밀” “신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해석질문: 이렇게 평범하고 단순한 듯한 “비밀” “신비”이지만--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도 구원하신다--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을 거절하고 비웃을 까요? 3:5절을 볼 때,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4), 적용질문:

a. 먼저오심: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자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이라는 좁은 땅, 어떤 경우 타 종교 혹은 하나님을 모르던 삶을 살다 이민오면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신 것에 대하여, 아니면 여러분이 모태로부터 신앙을 전 수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비와 경륜을 느끼시나요?

b. 만나주심: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아니하며 그의 평생을 주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꼭 환상이나 육성을 들은 것이 아닐 지라도, “아 그 때, 그 장소에서, 그 성경 말씀으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어느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등 언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나요? 그걸 한페이지 정도로 요약해서 정리해 보세요.

c. 다듬으심: 3:9-10절에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는 사람의 모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의 뜻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십니까?

- d. 들어쓰심: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에 대하여 증거하다 그는 그가 현재 격고 있는 “환난 고난 (로마 감옥에 수감됨)”에 낙심하지 말기를 그리고 그의 고난이 되려 성도들에게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으며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며 혹시 받은 고난 옥먹음이 있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뜻과 영광을 보여 달라고 기도해 보셨나요?

## 6. 에베소서 3:14-21

1), 도입질문: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언제 처형당할 지 모른 상황에 있음에도 이 편지를 쓰는 도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 모두를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로 구속하시는 신비를 생각하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3:14) (제가 짐작하기로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최근에 혼자 운전하다, 산책을 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지고 고마워서 여러분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왔던 적이 있나요?

2), 관찰질문: 바울의 기도는, 바울의 찬양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를 원하는 (16절),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박히기를 (17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높고 깊고 넓이를 알도록 (18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 지기를 (3:19)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 중에 어떤 것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 자산입니까?

3.) 해석질문: 3:20-21 절에서 그의 기도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광대하심에 대해 증거합니다. 이 원문은 해석하기에 난해할 정도의 수식어가 많고 긴밀하게 열린 긴 문장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며 떠오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섭리는 무엇인지 나눠 보십시오.

4), 적용질문:

- a. 먼저오심: 현재 여러분의 신앙과 개인의 삶에 의문 혹은 도전을 주는 역경이 있습니까? 돈, 관계, 직장, 자녀의 미래, 연로하신 부모님 건강-이런 도전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느껴 보신 적이 있나요?

- b. 만나주심: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하는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워지고 강해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에게 임한 환란을, 심지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도와 찬양의 기회로 만들었을까요? ‘
- c. 다듬으심: 우리는 종종 신앙이 하루 아침에 눈 깜빡할 사이에 커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자람, 성장, 강건해짐, 알게 됨” 등의 과정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자라는 여정에 있습니까? 어떻게 지속적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 d. 들어쓰심: 코비드, 경제 공황, 전쟁, 사회 부조리, 총기 사건 각종 폭력, 그리고 교회내의 내분 갈등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비평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점점 노령화되며 줄어가거나 문을 닫습니다. 3:14-21절을 통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인류구원의 계획과 가능성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 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믿음과 행함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며 꿈꾸어야 할 하나님에 사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7. 에베소서 4:1-16,**

1) 도입질문: 교회를 통하여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광대한 신일에 대하여 언급한 후 4:1-16절은 주님의 몸 된 것으로 서의 교회의 일치됨과 성숙함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왜 바울은 교회의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교회의 잠재성을 선포한 후 곧 교회의 일치됨에 대해 얘기했을까요?

2) 관찰질문: 우리가 거울을 보면 거울은 우리의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혹은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4:1-3절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거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고쳐져야 할 부분들을 하나 하나 열거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1절),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받아주십시오” (2절), “성령님의 평화의 띠로 묶어 주셨으니,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3절). 이 목록 중 어떤 것이 여러분 개인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속회 혹은 교회에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 해석질문: 4:4-6절은 모든 성도들을 교회에서 하나로 묶어주는 것들에 대하여 증거합니다—그리스도의 한 몸,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이 들 중 여러분에게 특히 의미가 있는 것, 더 기억하며 존중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나눠보십시오.

4) 적용질문:

- a. 먼저오심: 세례는, 유아 세례 든 장년 세례 든, 받으셨나요? 그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 거저 선물로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 목사님에게 여쭙보거나 책을 (연합감리교 찬송가 세례문도 도움이 됨) 읽어보세요. 그리고 깨달은 은혜의 통로로서의 세례에 대해 나눠보십시오.
- b. 만나주심: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과 그의 교회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4:7)—“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꼭 안수 받은 전임 사역자를 의미하기보다는 모든 세례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분명히 없다면 은사 설문지를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 c. 다듬으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사람이 남보다 잘 낫다거나 신앙이 좋다는 것을 내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하는 것, 섬기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2-13).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를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 d. 들어쓰심: 이 말씀을 요약하며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니 각자 지체로서 한 몸이 되어 섬기라고”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서 어떤 지체로서 섬기고 계시나요? 손, 발, 눈, 귀 혹은 장 콩팥? 어떻게 섬기고 계시나요?

8. 에베소서 4:17-32

1) 도입질문: 바울이 감옥에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소식을 들으며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었던 듯합니다. 그것은 어떤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된 그들을 어떻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비밀의 선물” = 그리스도 =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로 구속한 것

을 금세 잊어버리고, 옛 죄 된 삶으로 돌아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분명하게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구별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2) 관찰질문: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기 전의 삶을 규정지었던 것들은--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삶”(22), “거짓의 삶”(25), “화내고 용서하지 않은 삶”(26), “도적질하는 삶”(29) “남을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삶”(29)-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삶에 남아 있나요? 성령님께 보여주시라고, 이런 것들에서 자유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보셨나요?

3) 해석질문: 바울은 동시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설명합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 사십시오.” (4:23-24, 30) 이 권면 중 어떤 것이 여러분의 신앙성장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되돌아보고 나눠 보십시오.

4) 적용질문:

- a. 먼저오심: 내가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로 사함 받은 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케 해주며 이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 성화, 성구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일 예배, 아침 묵상, 성찬, 금식, 굶주린 이들,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일등, 어떤 행함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자리하게 하나요?
- b. 만나주심: 마음에 영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새사람을 입는 삶은 주님의 성령과 임재하심에 의해 가능합니다. 성령은 바람, 호흡, 불, 물, 빛 등-우리가 일상 대할 수 있는 것들로 비유되어 왔습니다. 이 들 중 어떤 성령님의 이미지가 당신을 주님의 영으로 날 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데 도움이 되나요?
- c. 다듬으심: 바울의 주님 안에서의 새 사람으로 성장, 권면은 거창한 것들이기 보다는 일상적인 것들과 연관 됨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 성격, 화를 표현 조절 하는 것, 일하는 마음자세와 태도, 돈 사용과 관리, 특히 성도로서의 말에 대해 반복하여 언급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면에서 가장 많이 성장하셨나요? 새해에는 어떤 측면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자라기를 계획하시나요?

- d. 들어쓰심: 4:32 절을 보면, 주님의 용서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서로를 용서하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누구를 어떻게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했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역사하심을 일기에 적어 보십시오.

## 9. 에베소서 5:1-20

1) 도입질문: 성도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 가르침에 있어 바울은 “어둠 과 빛”을 상징으로 변화되기 “전” 과 변화 된 “후”의 삶을 대조하며 성도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 폭풍이나 폭설 후 전기가 두절되었을 때, 특히 밤중에, 어둠에서 넘어지거나 어떤 것에 부딪쳐 심한 멍이 들거나 다친 경험이 있나요? 그때 느낀 빛의 소중함에 대해 나눠 보십시오.

2) 관찰질문: 5:8-9 절을 통하여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빛은 온기를 전해주며 식물, 동물, 사람에게 (비타민 디) 생명의 에너지와 열매를 줍니다. 빛 과 열매의 관계를 기억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심을 (창세기 1:1-2. 요한 1:1-3)에 따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나 묵상해봅시다.

3) 해석질문: 빛이 비치어질 때 어둠이 물러가고 (스위치를 켜자마자 순식간에) 빛은 전에 보지 못했던 더러운 것들을 들어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후에 따뜻한 햇빛이 창사일로 들어오면, 전에 멀쩡하게 보이던 곳에 하얗게 싸인 먼지 심지어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들까지 드러냅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정기적으로 주님의 빛을 당신에 삶에 비치어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을 환히 비춰 주시는 주님의 빛을 따라-“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5:14)-사시나요?

4), 적용질문:

- a. 먼저오심: 요즘 발달된 과학에 의하면 캄캄한 곳에서도 빛은 존재하며, 심지어 우리의 몸도 빛과 열을 발합니다 (인포레드 가글로 볼 수 있음). 실상 주님의

빛, 생명의 빛은 창세에,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불같이 갈라진 혀처럼 보여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이 외에 우리를 둘러싼 빛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목록을 만들어 보고 빛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 인도하심에 대해 묵상해 보십시오.

- b. 만나주심: 주님의 빛에 따른 삶을 사는 비결 중에 하나는 빛 되신 성령님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때 가능합니다 (5:18). 따라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삶을 살라”라고 당부합니다. 당신은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추구하며, 나아가 지속하여 따르고 있나요?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은혜의 수단은—기도, 금식, 예배, 성찬, 수양회, 사회 봉사, 섬김, 가난 구제, 사회정의 구현-- 무엇인가요?
- c. 다듬으심: 5:19-20에 바울은 또 우리가 빛에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복권 당첨이나 정부 스티뮬러 책을 받는 것 등의 물질적인 것을 넘어 여러분을 찬양케 하는 깊은 감사의 근원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거저 주시는 특혜 (favor)에 관련이 있습니까?
- d. 들어쓰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빛의 자녀이니 빛의 자녀답게 살라” 권면합니다. (5:18).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나의 언어 생활 (어떤 농담을 하는 것까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화를 조절하는 것, 그리고 부부 생활 혹은 독신으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묵상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어떤 면에 더 빛에 따라 살기를 권면하시나요?

## 10. 에베소서 5:21-6:9

1), 도입질문: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서 성도의 변화된 삶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5:21-6:9절에서 가정에서의 성도의 성화된 삶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이 중 어떤 것에 거룩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나요? 어떤 것에 더 자라야 한다고 느끼시나요?

2), 관찰질문: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을 때, 현재 우리의 시각으로 읽어 (Anachronism)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를 관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성 권리, 유아 보호, 노동법 등에 의해 보면 오늘 말씀에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철저하고 엄한 가부장적 사회에—여성은 이혼을 청구할 권한도 없었고, 가문을 이을 아들이 있으면 나머지 아이들은 쓰레기 장에 버리거나 유흥업소에 팔아 넘기기도 하던 사회) 였던 것을 기억한다면, 주님의 복음이 얼마만큼 세상의 고정관념을 바꾸었는지 실감케 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며 혹시—“이건 좀 심하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니”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구절이 있나요? 어떤 구절이 그런지,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나눠 보십시오.

3.) 해석질문: 신약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일컬어, 가정 법전 (household code) 라고 칭하였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며 수긍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순종 하십시오?”)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로, 초대 교회 기독교 전통의 법전 (household code), 혹은 케케묵은 우리 현대 문화 맥락과는 무관한 상징으로—어떤 것으로 보고 받아들이십니까?

4), 적용질문:

a. 먼저오심: 부부간의 관계, 나중 종과 주인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를 규정하는 중심 맥락의 배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과 생명을 주신 사랑과 헌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를 따지기 전, 갈라디아서 5:20절을 상고해보고 당신을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 했는지를 묵상하고 적어보십시오.

b. 만나주심: 본문은 구체적으로, 아내에게는 주님안에서 순종하기를, 남편에게는 자기 목숨을 내놓은 정도까지 아내를 사랑하도록,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6:1),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아이들이 열 받아 어쩔 줄 모르는 극한 경지에 앓도록) 하지 말기를 (6:4),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눈가림이 아닌 진심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6:6), 기업주나 직장에 주인은 자기 직원들을 차별대우 없이 공평하게 대하도록 (6:9) 권면합니다. 이 권면들 중, 당신 가슴에 가장 와 닿는 권면은 어떤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변화되고 주님의 자녀답게 행할 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보세요.

- c. 다듬으심: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사업주로, 혹은 직원으로 일하며 주님의 자녀로 빛으로 사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에 의하면 이것은 가능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 증거해줍니다. 우리를 도와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는 무엇인가요?
- d. 들어쓰심: 수년 전에 어떤 미국인이 “자기 보스는 한국 사람이었는데 그는 밑에 직원들을 항상 공손히 대했고, 아무리 어려워도 약속한 월급을 제때에 주는 좋은 상사였다고, 그 사람과라면 언제든지 일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따른 빛을 따라 사는 변화된 성도의 삶의 한 예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따라, 변화된 언어, 성격, 행동, 언행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해주실 것을 상상해보고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을 통해 밝아진 여러분의 가정, 자녀, 교회, 직장을 그려보고 주님께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도와 주시라고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 11. 에베소서 6:10-21

1) 도입질문: 우리는 벽에 긴 줄을 통해 연결해야만 통화가 가능했던 유선의 세상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은 무선으로 연결 통제되는 (와이어리스, 블루투스, 클라우드 서버, 세틀라이트 커뮤니케이션 등)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 (보이지 않으나 살아 계시고 영원하신 전능에 창조주 하나님, 히 11:3)에 의해 존재케 되었음을 듣습니다. 아울러 세상에 일어나는 지속적인 전쟁, 폭력, 악의 성행을 보면, 보이는 것 이상의 영적 세력이 있음을 느낍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로, 빛의 자녀로 살려면 영적 싸움에 영키게 됨을 알려주고, 나아가 어떻게 이 영적 싸움을 준비하고 싸워야 할지 증거해줍니다.

2) 관찰질문: 바울은 6: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며, 영적 전쟁의 태세를 준비하도록 권면합니다. 바울은 그가 안

티옥에서 자라며, 유다 에서 교육을 받으며,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며 지중해와 나라들을 지배했던 로마 군인들, 수 많은 전쟁 그리고 무장된 로마 병사들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그가 얻은 영적인 안목을 제시해 줍니다. 당신은 당신 주변에 현재 일어나는 정치 경제 인물들을 통해 어떤 영적 안목을 얻습니까? 현재 돌아가는 나라, 국제 정세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3) 해석질문: 바울이 오늘 열거한 영적인 무장 도구들은 군병들에게는 모두다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헬멧, 벨트, 가슴막이, 방패, 벨트, 신발, 그리고 칼”. 이 모두는—전투에 임하며, 싸우며, 이기고 든든히 서는데—반드시 필요한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각자는 상관되는 영적의미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그리고 평화의 복음의 신발 등.” 이 장비 중, 잘 소유되고 유지된 것은 어떤 것이요, 보강되어야 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4), 적용질문:

- a. 먼저오심: 로마시대를 묘사한 전쟁 영화들을 보면, 중요한 장수들은 그들을 돕는 사람들에 의해 값 옷 등 장비들로 *입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분은 우리의 주님 승리 되신 주님이심을 기억합시다. 이 주님께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필요한 장비로 값 옷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십니다. 이에 더하여 “평화, 믿음,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주십니다. (6:23) 내가 깨닫고 알기 전 먼저 나를 감싸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나눠보십시오.
- b. 만나주심: 우리가 영적전쟁을 직면할 때, 피곤하고 지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도우셨듯이 (마 4:11),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6:18)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지칠 때 우리를 도우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c. 다듬으심: 영적전쟁의 준비 장비들을 열거하면서 바울은 기도의 무기, 기도에 대한 당부로 이 서신의 결론을 맺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여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

하여 간구하십시오.” (6:18)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6:24) 어떤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언제, 어디서, 어느 방식으로 기도와 간구로 성령안에서 기도하십니까?

- d. 들어쓰심: 영적 전쟁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기도를 열거하며, 그 훌륭하고 거룩했던 대 사도 바울, 동쪽이 아닌 서쪽 유럽으로 전도를 감으로 서양의 역사를 바꾸었던 바울 (아놀드 토인비의 견해), 그는 돈이나 따른 물질적인 도움이 아닌 중보기도를 요청하며 편지를 맺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십시오.” (6:19) 여러분은 얼마만큼 교회 교우 친지로부터 기도의 도움을 받고 있나요? 여러분이 아시는 국내 국외 선교사는 누구 이시며, 여러분은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 어떻게 기도와 다른 방법으로 돕고 있나요? 그 분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복임이 널리 퍼지게 기도하시나요?